

국내외 지속가능연계채권 시장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 상 아 (sangahkim@kdb.co.kr)

- ◆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의 지속가능성과목표 달성여부와 채권의 재무·구조적 특성을 연계
- ◆ 글로벌 ESG채권시장에서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비중은 확대 추세이며,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및 평가체계 확립 등이 진행중

□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의 지속가능성 관련 실적과 채권 이자율 등의 특성을 연계시키는 ESG채권의 일종

-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정의한 지속가능성과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 SPT)의 달성여부에 따라 채권의 재무·구조적 특성이 변동하는 ESG채권의 일종
 - 사전 지정한 시점에 SPT의 달성여부를 평가한 후, 달성여부에 따라 평가시점 이후부터 만기까지의 채권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
 - SLB는 ①조달자금의 사용용도가 환경·사회적 프로젝트로 국한되는 여타 ESG 채권과 달리 자금 사용처의 제약이 없으며, ②SPT 미달성시 이자율 상승, 혹은 달성시 이자율 하락 등 ESG 경영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③발행 후 SPT 달성 여부의 보고가 의무화되어 그린워싱 문제를 해소 가능

ESG채권의 종류

종류	특성
녹색채권 (Green Bond)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사회적채권 (Social Bond)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지속가능채권 (Sustainability Bond)	환경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지속가능연계채권 (Sustainability-Linked Bond)	발행자가 사전에 정의한 ESG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 및 구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채권

자료 : 한국거래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sribond.krx.co.kr)

- 국제자본시장협회는 SLB 시장의 표준을 정립하고자 '20.6월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SLBP)'을 발표
 - SLBP는 SLB의 핵심구성요소로서 ①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의 설정, ②SPT의 설정, ③채권의 재무·구조적 특성 설계, ④채권 발행 후 사후보고, ⑤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의 검증을 제시
 - ※ KPI는 '탄소배출량', '청정에너지 발전비중' 등 지표, SPT는 시점별 KPI 목표수치

□ 글로벌 ESG채권시장에서 SLB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는 SLB 시장 제반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

- '22년 글로벌 SLB 발행액은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시장 위축으로 인해 감소했으나, 전체 ESG채권 시장에서의 SLB 발행액 비중은 확대 추세를 지속
 - 전체 ESG채권 대비 SLB의 발행금액 비중은 '19년 1.3%에서 '20년 1.9%, '21년 9.4%, '22.3분기 말 10.0%로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사례

발행기관 (소재국)	발행규모 (발행시점)	SPT	SPT 달성여부 연동 채권구조
에넬 (이탈리아)	15억달러 ('19.9월)	'21년까지 청정에너지 발전비중을 55%로 확대	미달성시 '22년부터 만기까지 이자율 25bp 상향 조정
테스코 (영국)	7.5억유로 ('21.1월)	'15년 대비 '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미달성시 '27년부터 만기까지 이자율 25bp 상향 조정
칠레 정부 (칠레)	20억달러 ('22.3월)	- '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95백만톤 이하로 감축 - '3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로 확대	1개 SPT 미달성시 '34년부터 만기까지 이자율 12.5bp, 2개 미달성시 25bp 상향 조정
SK하이닉스 (한국)	10억달러 ('23.1월)	'20년 대비 '26년 탄소배출량 집약도 57% 감축	미달성시 만기시점 이자율 75bp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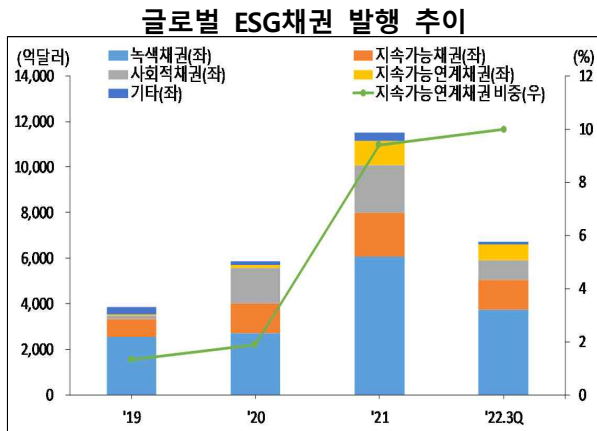
자료 : 각 기관 보도자료 등

- 국내 ESG채권 발행액도 '22년 중 세계적인 채권시황 악화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SLB 시장 조성을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향후 경제여건 회복시 SLB 발행 활성화가 기대
 - 국내 ESG채권 발행액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들의 규제 강화,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수요 확대 등에 따라 '19년 25.7조원, '20년 58.9조원, '21년 86.8조원으로 증가했으나, '22년에는 57.5조원 수준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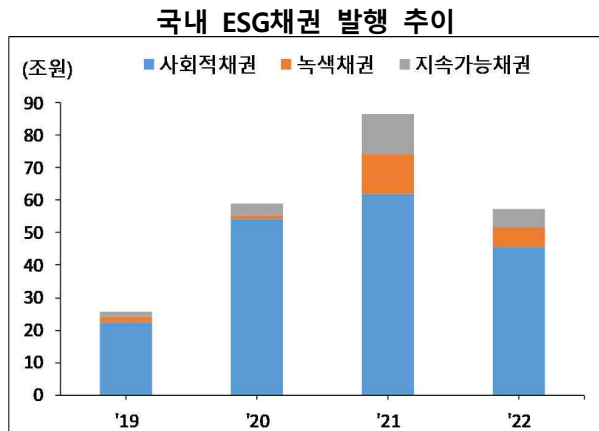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은 '21.8월, ESG 경영과 투자 선순환의 확산을 위한 중기과제로서 SLB의 도입을 제시*

*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업체는 '21년 중 자체적으로 SLB의 평가방법론을 발표
- 한국거래소는 '22.9월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SLB 부문을 신설했으며, 신규 상장 SLB에 대해 상장 수수료, 연 부과금 등의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SLB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을 제공
- SK하이닉스는 '23.1월, 국내 기관 최초로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SLB를 발행하여, '20년 대비 '26년 탄소배출량 집약도를 57% 감축한다는 SPT를 제시



자료 : IIF, "Sustainable Debt Monitor"



주 : 한국거래소 등록채권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